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0년 2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논문

# 은유의 의미기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허 정 원

# 은유의 의미기술에 관한 연구

Formal Description of Metaphorical Meanings

2010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허 정 원

# 은유의 의미기술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 영 헌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허 정 원

허정원의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조 학 행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고 희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영 현 인

2009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ABSTRACT .....	iii
제 1장 서론 .....	1
1.1 은유의 의미 .....	1
1.2 은유에 관한 몇 가지 견해 .....	1
1.3 은유 기술의 문제점 .....	2
1.3.1 합성성(Compositionality)의 원리 .....	3
1.3.2 선택 제약(Selectional Restriction) .....	4
제 2장 사건 구조 의미론 .....	15
2.1 부사 .....	15
2.2 주어, 목적어 생략 .....	17
제 3장 은유의 형식과 의미 .....	20
제 4장 은유의 사건 구조적 의미기술 .....	23
4.1 명사적 은유의 기술 .....	23
4.2 서술적 은유의 기술 .....	24

4.3 문장 은유의 기술 .....	25
제 5장 결론 .....	27
참고문헌 .....	29

# ABSTRACT

## Formal Description of Metaphorical Meanings

Jeong-Won Heo

Advisor : Prof. Young-Hern Lee Ph.D.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According to Lakoff and Johnson(1980), metaphor was regarded as a poetic imaginary or rhetoric technique, and was not dealt with a general term but specific representation. This view causes people to think that metaphor is rather necessary to express a rhetoric effect in poem or literature than to use in their daily life. But it is fact that metaphor actually affects not only our daily lives but also cognitive power and concept system.

This paper deals with the meaning description of metaphor by the subatomic semantic model. Miller(1979) classified the type of metaphor as nominal metaphor, predicative metaphor, and sentential metaphor. However his description of metaphor could not satisfy the actual meaning. Especially his innovative device for metaphorical meaning description was a function SIM but the function could not apply to the predicative and sentential metaphorical meaning description.

According to Davidson's event structure semantics or subatomic semantics, it supports to explain adverb, which is regarded as an unnecessary element, grammatically all right with following

compositionality as well as to describe meaningful relation like entailment and omission. In this context, the subatomic semantics could represent the metaphorical meaning more easily. For instance the usual predicative metaphor means the entailment or result, and those meanings can be represented without function like SIM. Therefore subatomic semantics is just strong enough to be as a method to describe the metaphoric meaning. So it is possible to describe the metaphoric meaning formally by adapting event structure semantics model.

# 제 1장 서론

## 1.1 은유의 의미

본래 은유 (metaphor)란 말은 ‘metaphora’라고 하는 희랍어에서 유래하였는데 "초월하여, 너머로"(over, beyond)라는 의미의 ‘meta’와 "옮기다, 전이하다"(carry, transfer)라는 의미의 ‘pherein’으로부터 연유되었다. 한마디로 ‘의미를 초월하여 전이 하는 것’으로 어떤 특정한 의미나 내용을 다른 관점으로 말하는 것을 뜻한다.

Hawkes(1972)에 따르면 은유는 표준의미로 된 일상어(문자적 언어체계)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여 문자 그 자체의 의미를 떠나 비유적 의미로의 전이형식을 취해 새롭거나, 확대하거나, 특수화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며, 전통적으로 비유 언어의 가장 기본적 형태로 언어작용의 한 특별한 조합이다. 이렇듯 은유는 한 사물의 양상이 다른 하나의 사물로 옮겨져 두 번째의 사물이 마치 첫 번째의 사물인 듯이 서술되는 것을 말한다.

## 1.2 은유에 관한 몇 가지 견해

전통적으로 은유는 수사학의 전유물로서 문체론이나 시의 기법에서 논의 되어왔을 뿐 언어학의 연구대상으로는 논의되지는 않았다. Aristotle(1968)의 *Poetics*에서는 은유란 다른 사물에 속하는 명칭을 한 사물에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일상적인 용어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만을 가져다주며, 어떤 참신한 것을 파악하게 되는 것은 은유(수사학)라고 하였다. Richards와 Black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은유에 관한 연구를 이론적으로 체계화 시킨 장본인들로 철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Richards(1981)에 따르면 ‘A is B’형태의 문장 밑바탕에는 화제(tenor) 즉 기저관념과 매개체(vehicle)의 두 영역 사이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은유의 연

구를 활성화 시키는 데 한 몫 하였으며, Black(1955)은 은유를 생략된 직유로 보아 은유가 직유와 거의 다르없다는 견해와, 직유와 은유를 확실히 구별하여 인지적인 면에서 은유를 직유로 환원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즉 대치론, 비교론, 상호작용론으로 분류하고, 은유의 이해에 대한 통찰력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은유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많은 논점이 되어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미적으로 함수와 논항 사이의 불일치(incongruity) 및 선택 제약(selection restriction)의 관점에서 은유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기술하는 데 있다. 나아가서 은유의 본래적 특성 가운데 하나인 중의성(ambiguity)의 문제를 보다 명료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맥락(context)이나 상황(situation)이 은유의 의미와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은유표현은 소통과 풍자의 본래적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 은유는 사건(event)과 상태(state)의 기술로 간주하고 이들 은유를 사건과 상태로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 1.3 은유 기술의 문제점

의미이론에서 필요한 한 가지 특성은 통사적 표현과 의미를 관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각각의 이론에 따른 의미적 특성은 서로 상이할 수 있지만, 어떤 이론이든 의미와 통사적 표현을 연결 지을 수 있는 기술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무수한 표현의 구나 문장의 의미를 모두 이해하는 불가능하지만, 작은 표현 단위의 의미에서 더 큰 표현 단위의 의미를 어떻게 결정짓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수많은 표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은 표현 단위의 의미에서 나아가 더 큰 표현 단위의 의미를 이끌어 내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합성성(compositionality)의 원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유의 의미론적 접근에 있어서 합성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유 기술의 문제점이 노정된다.

### 1.3.1 합성성(Compositionality)의 원리

독일의 언어 철학자 Gottlob Frege는 Frege(1975)에서 이른바 Frege의 합성성의 원리 (Fregean Principle of Compositionality) 또는 Frege의 원리 (Fregean Principle)라고 불리는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 i) The meaning of an expression is a function of the meaning of its parts.
- ii) The sense of a complex is compounded out of senses of the constituents.
- iii) The reference of an expression is determined by the references of the components.

합성성의 원리에 따르면 전체의 의미는 부분들의 의미의 함수로 정의할 수 있으며, 복합표현의 의미는 구성요소들의 의미(sense)로부터 도출되며, 한 표현의 지시대상은 구성요소들의 지시대상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Montague(1974)의 이론에 의하면 문법의 통사론과 의미론이 대수(algebra) 형태로 나타내어지고 이 통사적 대수(syntactic algebra)로부터 의미적 대수(semantic algebra)로의 유일한 동형성(homomorphism)<sup>1)</sup>이 주어진다.

그리고 Janssen(1978)은 통사적인 합성성 원리와 의미적인 합성성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2) a. Semantic Compositionality Principle:

The meaning of a compound expression is built up from the meaning of its constituent parts.

---

1) 즉 algebra A의 구조를 가지면서 B라는 algebra로 변형함을 말함.

b. Syntactic Compositionality Principle:

Each syntactic rule operates on the well-formed expression of specified categories in order to produce a well-formed expression of a specified category.

Montague 문법에서는 (2)의 의미적 합성성 원리를 받아들여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쓰고 있으며 다음 (3)과 같은 합성성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3) The meaning of an expression is a function of its parts and of the way they are syntactically combined.

(Partee, 1984:281)

이렇듯 주어진 표현의 의미는 합성성의 전제하에서 이들 부분들의 의미 사이에는 선택적 제약의 원리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 1.3.2 선택 제약 (Selectional Restriction)

은유에 관한 언어학적 이론은 Chomsky(1965)의 선택적 제약 원리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선택적 제약에 위배된 의미론적 일탈문에 적절한 해석을 부여하는 방법을 밝히는 것이 은유이론의 중심과제가 되어왔다.

(4) a. John is a student.

b. John is a bear.

(4a)와 (4b)를 대비해보면, 문장의 생성과정에서 볼 때 전자는 문법적인 문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후자는 비문으로서 생성이 불가능한 문장이다. 왜냐하면 ‘John’

은 원소로서 ‘사람-학생’과 부분집합의 관계가 되지만, ‘John’과 ‘bear’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John’이 ‘bear’의 이름이 아니지 않고서는 논리상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언어생활이나 문장에서는 이러한 표현적인 일탈이 얼마든지 허용된다. 물론 표현적 일탈이라고 해서 모든 표현이 다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경험적 연상 의미라도 개념구조 실현에 있어 합리성이 입증될 수 있으며 문법적인 일탈이 가능하다.

- (5) John(S) is stupid. (Y1)
- (6) A bear(x) is stupid. (Y1)
  - is dull. (Y2)
- (7) John(S) -- eats honey. (Y3)
  - is stupid like a bear.(Y1)
- (8) John(S) is a bear(x).

(5)의 ‘John’이라는 주제어에 대한 설명어(comment), ‘미련하다’는 화자의 판단인데 이를 나타내기 위해 (6)처럼 곰이 지닐 수 있는 연상적 의미로서 설명이 가능하다면 이들 자질 가운데 표현 대상과의 공통성으로 인해 (7), (8)과 같은 비유의 성립이 가능해 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화자의 연상적 의미자질의 결정에 대한 일반의 공인이다. 이를테면, 화자와 청자, 또는 작가와 독자 사이에 곰의 연상의미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경우엔 정확한 의미전달은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이 은유의 의미 해석에 있어서 의미전달의 문제가 된다는 주장은 이영길(1985), Cohen(1975:671), Matthews(1971)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이영길(1985)에서는 은유를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일탈(逸脫)로 간주하여 일탈을 의미론적 일탈, 화용론적 일탈, 통사론적 일탈로 나누고, 각각의 일탈의 특성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즉 이영길(1985)에서는 은유적 표현은 의미론적 일탈 구조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Cohen(1975:671)은 어떤 문장이 거짓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은유로

간주하고 숨은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Matthews(1971)는 선택 제약의 위배가 은유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하였다.

(9) John walks.

(9)는 ‘John’이라는 행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명사라는 구성성분과 ‘walk’라는 행동을 표현해 주는 동사로서의 구성성분 각 각의 의미에 의해 ‘John 은 걸어간다.’라고 해석되어지고 이 문장은 선택 제약(selectional restriction)에 위반을 하지 않았기에 적격문으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서, ‘walk’라는 동사의 특성상 그 동사의 주체에 있어서 ‘John’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합성성의 원리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선택 제약에 위반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점도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은 비적격문이라고 할 수 있다.

(10) The stone walks.

즉 (10)이 비문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돌맹이는 걸어간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돌맹이는 걸어갈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walk’라는 동사는 움직일 수 있는 주체를 적합한 주어로 여기는 반면, ‘stone’은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선택 제약에 위반이 된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비정상적인 문장으로 해석 되어질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장이 선택 제약에 위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한 문장이라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그 멍청한 놈이 걸어간다.’라고 해석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하찮은 놈이 걸어간다.’ 등 등 저마다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합성성의 원리에 의하고 선택 제약에 위반이 뭍에도 불구하고 의미해석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도구를 우리는 ‘은유(metaphor)’라고 할 수 있겠다.

언어학에서도 Chomsky를 주창자로 하는 변형생성 문법학자들은 은유문을 선택 제약(selectional restriction)을 위배한 일탈문(deviant sentence), 즉 정문(well-formed sentence)에서 벗어난 문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의미론적 접근은 의미자질(semantic feature)의 개념을 사용하여 의미적 일탈을 해석하려 시도하는 것이다. Chomsky(1965)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예문들은 비록 구조적으로는 적절한 문장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의미론적으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 제약을 위배하고 있는 일탈문 이라고 볼 수 있다.

- (11) a. Colorless green ideas sleep furiously.
- b. Golf plays John.
- c. The boy may frighten sincerity.

(11a) 와 (11b)에서 ‘sleep’과 ‘play’의 주어는 [+ ANIMATE] 라는 의미자질을 가진 어휘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선택 제약을 어기고 있고, (11c)에서는 ‘frighten’의 목적어는 [+ ANIMATE] 의미자질을 가진 어휘를 취해야 한다는 선택 제약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처럼 Chomsky(1965)는 적절한 맥락이 제공되는 한, 선택 제약 규칙을 지키는 정문을 직접 유추함으로써 선택제약규칙을 위반하는 의미적 일탈문도 은유적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선택 제약 위반은 은유적 해석을 하도록 해주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12) Sentences that break selectional rules can often be interpreted metaphorically or allusively in one way or another, if an appropriately context of greater or less complexity is supplied. that is, these sentences are apparently interpreted by a direct analogy to well-formed

sentences that observe the selectional rules in question.  
(1965:149)

그러나 선택 제약을 위반할 경우 모두 유의미한 문장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변칙적(anomalous) 문장이 생성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유추해석이 가능한 문장들에 대해서 은유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본다. Elgin(1979)에 의하면 (13)에 있는 문장들은 선택 제약을 어기고 있는 무의미한 변칙적인 문장들이다.

- (13) a. I met a pregnant bachelor on the subway.
- b. Philip was attacked by his electronic typewriter.
- c. There is an exceptionally exquisite unicorn in my desk draw.

(13a)에서 ‘pregnant’는 [+FEMALE] 이라는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 ‘bachelor’는 [+MALE] 이라는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맞지 아니하고 서로 어긋나는 것을 볼 수 있다. (13b)에서는 ‘attack’의 주어는 [+ANIMATE] 이어야 하는데 ‘typewriter’는 무생물을 나타내는 물질적 대상이기 때문에 비적절한 문장이 된다. (13c)에서도 역시나 존재하지 않는 대상인 ‘unicorn’을 존재한다고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칙적이다. 그러나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 (14) The volcano burped.

(14)에서 ‘burp’의 주어는 [+ANIMATE] 라는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선택 제약을 위배하고 있으므로 비문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문은 은유가 될 수 있다. 구 구조 규칙(phrase structure rule)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구조 가운데 (14)의 구조와 유사한 글자 그대로의 표현을 나타내는 문장은

다음과 같다.

(15) The volcano erupted.

(16) The man burped.

위의 예문들을 보듯이 주어인 명사는 동사에 의해 명시된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 ‘burp’의 의미자질은 다음과 같다.

(17) [+ HUMAN ACTION]

[+ EMITTED FROM MOUTH]

[+ COMING FROM WITHIN]

[+ CAUSED BY GASEOUS PRESSURE]

[+ ABRUPT]

.....

그러므로 (14)에서 ‘volcano’를 ‘burp’의 의미자질에 관련하여 ‘volcano’(화산)을 ‘man’(인간)과 같은 속성을 갖는 것으로 여기고 유추해석 해야지만 은유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cone’(화산추)는 ‘lips’(입술)로, ‘crater’(분화구)는 ‘mouth’(입)으로, 그리고 ‘vent’(배출구)는 ‘throat’(목구멍)으로 각각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동사의 의미자질을 바탕으로 하는 유추작용에 의해 주어의 의미자질에 변화를 초래하게 함으로써 은유해석이 가능해진다. 또는 (14)를 선택 제약을 위배하지 않은 은유표현 (18)에 대한 유추 방법으로 (14)의 은유적 의미를 얻을 수 있다.

(18) The cone of the volcano is its lips.

이렇듯 (18)과 같은 지극히 정상적인 문장에 대한 유추, 구 구조의 동일성 그리

고 동사 ‘burp’가 갖는 의미자질들의 영향으로 ‘volcano’ 원래의 의미자질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은유적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우리가 은유를 해석할 때에 그 은유의 구 구조와 어휘자질들로 명시된 구성단어들의 비 은유적 사용의 의미들에 의해서 안내된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19) The man is a wolf.

이 은유문은 ‘man’이 ‘wolf’가 속하는 부류의 한 구성원으로 단언되는 구 구조를 갖는다. 다음은 (19)와 같은 구 구조를 가지며, 각기 동일한 부류로 단언되는 문장들이다.

(20) a. The man is a gentleman.

b. The man is a fool.

c. The man is a professor.

위의 (20a-c)의 문장들은 선택 제약의 위배가 없다. ‘man’과 ‘gentleman’ 사이의 공통자질들 외에, ‘man’에는 없지만 ‘gentleman’에는 속하는 부류를 한정시켜주는 비 공유 자질들이 있다. 반면 아래에서 보듯이 (19)에서 선택 제약에 위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 (The) man is (a) wolf.

<u>man</u>	<u>wolf</u>
+ DEFINITE	+ DEFINITE
+ COUNT	+ COUNT
+ ANIMATE	+ ANIMATE
+ MAMMAL	+ MAMMAL
+ HUMAN	-HUMAN
+ ADULT	+ CANINE
+ MALE	+ QUADRUPEDAL
+ LINGUISTIC	+ TAIL
+ BIPEDAL	+ HAIRY
	+ NOCTURNAL
	+ VICIOUS
	+ PREDATORY
	+ AVOID MAN

즉 [+HUMAN]의 자질을 갖는 부류의 한 구성원이 [-HUMAN]의 자질을 갖는 부류의 한 구성원으로 단언된다. 따라서 선택 제약 위반은 은유문 (19)와 비은유문 (20)을 구분해 주는 주요 수단이 된다. 그리고 선택제약 위반인 [+HUMAN] / [-HUMAN]의 주위에는 그와 관련되는 위배자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자질들을 더 상세히 명시해주는 자질들이 있다. 즉, [+BIPEDAL] / [+QUADRUPEDAL], [+LINGUISTIC] / [-LINGUISTIC], [-TAIL] / [+TAIL] 등이다. ‘man’의 자질체계에 대한 견해를 조직하는데 가장 중요한 ‘wolf’의 의미자질들이 있는데, 이는 선택 제약 위반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은 자질들이다. 다시말해서, [+NOCTURNAL], [+VICIOUS], [+PREDATORY], [+AVOID MAN] 등이 그러한 자질들인데, 이는 우리가 은유문을 이해할 때 선택 제약에 위반한 자질인 [+HUMAN] / [-HUMAN]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자질들

( [+QUADRUPEDAL] , [+TAIL] , [+HAIRY] )보다 더욱 중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의 구성어휘들의 자질체계에서 볼 때, 비 은유문들에서는 지켜지는 선택 제약들이 일탈문의 경우에는 위배되는데, 바로 이 선택 제약의 위배가 의도적으로 의미없는 문을 발화하지 않는 한, 그의 제 1적절조건인 은유와 비 은유를 구별해주는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그리고 또한 선택 제약 위배의 결과는 선택 제약 뒤에 자질에 밀접하게 관련된 자질들은 물론 그 선택제약 위반 자질((19)에서 [+HUMAN] / [-HUMAN] )을 덜 강조시킴으로써, 은유문이 이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비 은유문을 이해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이해 가능하도록 해주는데, 이것은 곧 그의 제 2의 적절조건을 충족시켜준다.

Matthews(1971)는 은유문을 선택 제약을 위반하는 일탈문으로 보아 선택제약을 준수하는 정문(비 은유문)에 직접적으로 유추함으로써 이해하려는 점에서 Chomsky(1965)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으나, 은유이론을 보다 일반적인 언어이론에 포함시켜서 비 은유문과 똑같은 방법으로 은유문을 해석하려는 점에서 Chomsky(1965)와 다르며 보다 혁신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Samuel Levin(1977)의 의미자질을 이용한 은유 해석에 관한 논의를 아래의 보기로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21) The stone died.

(22) stone

; (((Object)(Physical))(Natural)(Non-living)(Mineral)(Concrete))

(23) die ; (((Process)((Result)((Cease to be)(Living))) X)

Levin(1977)은 위의 변칙 문장을 해석하기 위하여 ‘stone’과 ‘die’를 의미자질의 개념을 이용하여 결합(conjoining), 분리(disjoining) 그리고 대치(displacement)를 통해 여섯 가지의 해석 방법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22)에서 stone은 [+PHYSICAL OBJECT] [+NATURAL] [-LIVING]

[+MINERAL] [+CONCRETE] 와 같은 의미자질의 집합체이며, 술어인 die는 [PROCESS WITH RESULT] [SOME LIVING ENTITY X CEASE TO BE LIVING] 과 같은 의미자질의 집합체이다. 다시 말해서, stone은 [-LIVING] 자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 die는 [+LIVING] 의 자질을 가진 주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택 제약을 어기고 있다. 그러므로 (21)의 문장을 글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Weinreich(1996)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한 어휘의 의미자질을 다른 어휘의 의미 자질에 전승시키는 자질전승 규칙(transfer rule)과 본래 가지고 있는 자질을 없애 버리는 삭제 규칙(cancellation rule)을 이용한다. 이 때 자질 전승의 전승 방향은 쌍방향성(bidirectionality)이다. 다시 말해서 ‘die’의 의미자질 중에서 [+LIVING] 을 ‘stone’의 자질로 전승시키고 ‘stone’의 자질들 중 [-LIVING] 을 삭제 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는 (24)와 같은 ‘믿음직한 사람 혹은 감정에 메마른 사람이 죽었다’라는 은유적 해석을 얻게 된다.

(24) Some rather solid human individual died.

또 다른 방법으로 stone의 의미자질 [-LIVING] 을 die의 의미자질들에 이접적으로(disjunctively) 덧붙이면, cease to be living으로부터 living이 삭제되어 (25) 처럼 cease to be가 된다. 이 경우 동사의 의미가 살아있는 주어와 살아있지 않은 주어에 중립이 되도록 변한다.

(25) The stone ceased to be

(The stone ceased to be exist)

이처럼 일반적인 의미에서 비정상적인 문장 (21)이 의미자질 전승에 의해 정상적인 은유적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자질 전승 방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 특정한 맥락에서만 정상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Levin(1977)의 분석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 제 2장 사건 구조 의미론

은유를 기술하기 위해 사건 구조 의미론에 근거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것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종래 문법 체계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부사를 기술하는데 문제점이 따랐다. 즉 부사를 필수적 요소가 아닌 단순히 부수적인 것으로 다루어 합성성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함의’라는 요소와 ‘생략’이라는 요소를 문법적 체계에 다루어 본 적이 없기에 은유를 다루는데 있어도 제약이 따를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사건 구조 의미론에서는 합성성의 원리를 지켜가면서 부사를 없어도 되는 부가적인 것으로 도외시 되었던 것을 문법적 체계로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의 동일성, 함의, 생략과 같은 의미관계를 다룰 수 있는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은유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이와 같은 사건 구조 의미론에 입각한 방법을 채용하고자 한다. 우선 이러한 기능을 다룰 수 있는 사건 구조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 2.1 부사

Davidson(1967)에서 부사어는 독립적으로 명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제안하였다.

(26) Jones buttered the toast slowly with a knife in the bathroom at midnight.

(26)의 부사어는 slowly, with a knife, in the bathroom, at midnight와 같은 요소들은 문장이나 술어를 수식하는 요소가 아니라, 명제와 관련된 독립적 명제구조로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부사어는 사건과 관련된 명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에 따라 (26)의 부사어들은 서술어 buttered의 논항이 될 수 있다. 이것을 형식화 해보자면 다음 (27)에서처럼 기술 할 수 있다.

(27) BUTTER(j, the toast, slowly, with a knife, in the bathroom, at night)

하지만 (27)의 서술어 BUTTER는 j를 포함한 at night까지 모두 6개의 논항을 갖는 이른바 6항술어라 한다면 다음의 서술어 BUTTER는 이른바 j와 the toast 라는 두개의 논항을 갖는 2항 술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8) Jones buttered the toast.

BUTTER(j, the toast)

(28)의 서술어 BUTTER가 동사 BUTTER의 의미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변역이라고 가정해보자. 동사 butter가 (27)처럼 논항으로 분석되는 부사어와 함께 쓰일 때, 동사 BUTTER가 취하는 논항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27)의 BUTTER와 (28)의 BUTTER는 서로 다른 서술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동사 butter가 서로 다른 논항을 갖는 경우에, 문장에는 논항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논항 자리와 더불어 의미가 서로 다른 서술어 BUTTER가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서술어 BUTTER는 기본적으로 (29)처럼 표시된다. (BUTTER를 프라임 기호로 표기한다.)

(29) a. Jone buttered the toast slowly.

BUTTER'(j, the toast, slowly)

b. Jone buttered the toast slowly with a knife.

BUTTER''(j, the toast, slowly, with a knife)

c. Jone buttered the toast slowly with a knife in the bathroom.

BUTTER'''(j, the toast, slowly, with a knife, in the bathroom)

d. Jone buttered the toast slowly with a knife in the bathroom at midnight.

BUTTER''''(j, the toast, slowly, with a knife, in the bathroom, at night)

(29d)의 논항구조는 일반적으로 (28)처럼 표기한다.

(30) BUTTER''''(butterer, butteree, manner, instrument, place, time)

즉 j는 butterer, the toast는 butteree, slowly는 manner, with a knife는 instrument, in the bathroom은 place, at night은 time으로 각자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부사어는 논항으로 간주함으로써 보다 명시적 의미를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이다.

## 2.2 주어, 목적어 생략

Davidson은 동사의 기본 서술어의 논항으로써 주어나 목적어를 유지 하였다.

(31) Jones buttered the toast.

BUTTER(j, the toast, e)

명제 'Jones did some buttering'과 'the toast got buttered'라는 명제를 함의한다. 이 두 명제는 독립된 피접속어로 분리될 수 없으며, 이들 명제는 구조상 독립된 함의로 표시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Hector-Neri Castañeda(1967)에서 지적되었다.

- (32) a. I flew my spaceship to the Morning Star.
- b. I flew to the Morning Star.
- c. My spaceship was flown to the Morning Star.
- d. I flew.
- e. My spaceship was flown.

Castañeda(1967)는 (32a)이 32(b-e)를 함의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즉, (32b),(32d)의 함의는 목적어 my spaceship의 생략과 관계가 있고, (32c),(32e)의 함의에는 주어 I가 생략되었다. 이러한 예는 기본 문장이 함의하는 작은 표현들에는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주어와 목적어는 FLY의 논항구조로부터 제거되어야 하고, 분리된 피접속어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신-Davidson(Davidson의 수정 보완)식으로 표시를 해보자면 (33a)와 같고, 이를 Davidson식 표기(33b)와 비교를 해보자.

- (33) a.  $\exists e(\text{FLY}(e) \ \& \ \text{SUBJECT}(I, e) \ \& \ \text{OBJECT}(\text{my spaceship}, e) \ \& \ \text{TO}(e, \text{the morning star}))$
- b.  $\exists e(\text{FLY}(I, \text{my spaceship}, e) \ \& \ \text{TO}(e, \text{the morning star}))$

(33a)의 신-Davidson식 표시가 주어졌을 때, 위의 (32)의 함의는 (34)와 같다. (34a)는 (34b-e)를 함의하고, (34c)는 (34e)를 함의한다.

- (34) a. I flew my spaceship to the Morning Star.

$\exists e(\text{FLY}(e) \ \& \ \text{SUBJECT}(I, \ e) \ \& \ \text{OBJECT}(\text{my spaceship}, \ e) \ \& \ \text{TO}(e, \ \text{the morning star}))$

b. I flew to the Morning Star.

$\exists e(\text{FLY}(e) \ \& \ \text{SUBJECT}(I, \ e) \ \& \ \text{TO}(e, \ \text{the morning star}))$

c. My spaceship was flown to the Morning Star.

$\exists e(\text{FLY}(e) \ \& \ \text{OBJECT}(\text{my spaceship}, \ e) \ \& \ \text{TO}(e, \ \text{the morning star}))$

d. I flew.

$\exists e(\text{FLY}(e) \ \& \ \text{SUBJECT}(I, \ e))$

e. My spaceship was flown.

$\exists e(\text{FLY}(e) \ \& \ \text{OBJECT}(\text{my spaceship}, \ e))$

이렇듯 사건 구조 의미론은 사건(event)과 사건 구조(event structure)에 의하여 의미를 표시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명제의의를 결정하는 요소는 주어나 목적어, 보어뿐만 아니라 부사어와 같은 수식어도 논항으로 표현으로 간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동사의 정통적 논항, 동사의 기본 서술어의 논항으로써 주어나 목적어를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변항을 도입하였고, 부사구는 사건에 관한 서술어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건 자체는 동사적 서술어의 논항이며, 시간이나 태도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는 사건에 관한 서술어라는 것이다. 사건 구조 기술에 의한 함의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명제를 독립적인 피접속 명제로 분리하여 기술하였는데 즉, 수동태의 문장이나 목적어 생략구문의 함의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논항을 분리하여 기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처럼 사건 구조 의미론 우수성을 확인함으로써 은유를 기술 하는데 주요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본다.

### 제 3장 은유의 형식과 의미

은유표현의 형식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Miller(1979; 230-34)는 은유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적인 특성을 명사적 은유(nominal metaphor), 서술적 은유(predicative metaphor) 그리고 문장은유(sentential metaphor)로 세분하고 있다. 우선 명사적 은유 가운데는 (35)와 같은 구조를 갖는 것들이 있다.

- (35) a. 남자는 늑대다.
- b. 순자는 여우다.
- c. 그 교수는 돌이다.
- d. Time is money.
- e. Money is life.

이러한 명사적 은유는 두 명사가 나타내는 개념이 동일하거나, 두 명제가 나타내는 외연이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두 명사나 두 명제 사이에는 유사성(similarity-SIM)<sup>2)</sup>이라는 관계(relation)로 정의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명사적 은유는 두 명사나 명제가 나타내는 외연의 유사성으로 나타낸다.

- (36) a. 남자는 늑대다.
- b.  $BE(x,y) \rightarrow (\exists F)(\exists G)[SIM [F(x), G(y)]]$

즉 “인간은 늑대다”라는 표현은 어떤 개체 x가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개체x는 늑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36)의 의미는 (37)과 같이 쓸 수 있다.

---

2) 여기에서 SIM이라는 함수는 명제 F(x)와 G(y)가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37) 남자는 늑대다 → 남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늑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유사하다.

그리고 서술적 은유(predicative metaphor)는 서술적 개념이 동사나 동사구 또는 서술 형용사에 의하여 은유적 의미를 갖는 경우이다.

(38) a. The rich perform leisure

b. PERFORM(the rich, leisure) →

( $\exists F$ )( $\exists y, y'$ ) [SIM [F(the rich, leisure), PERFORM(y, y')]]

c. PERFORM(the rich, leisure) →

[SIM [ENJOY(the rich, leisure), PERFORM(the poor, duties)]]

서술적 은유는 형식적으로 명사적 은유와 유사하지만, 명사적 은유가 두 명사간의 관계 즉, 두 개 논항사이의 관계라 한다면 서술적 은유는 1항 관계라 할 수 있다. (이영현(출판예정) 은유의 형식과 의미기술)

(39) a.  $x \in G$

b.  $x \notin G$

(39)에서 보는 것처럼 표현 형식에 있어서는 “x는 G이다”와 같지만, 의미상으로는 x가 G의 속성을 갖지 않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서술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부자가 여유를 즐기는 것은 마치 가난한 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장 은유를 들 수 있다. 문장 은유의 특성은 앞에서 보았던 명사적 은유나 서술적 은유와는 달리 선택제약을 여기지도 않지만, 주어진 맥락이 없이는

명시적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이다.

(40) A: 어제 시험 어떻게 보았어?

B: 죽 썼어.

(41) Jesus is a carpenter. 3)

(40b)의 “죽 썼다”는 선택 제약을 어기는 경우도 아니며 문법적으로 적격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죽 썼다”가 나타내는 의미는 음식의 한 종류인 죽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험을 잘 치루지 못함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다.

---

3) 예수는 실제 목수라는 의미와 병든 영혼과 육체를 새로 고쳤다는 점에서 영혼의 목수를 의미하기도 한다.

## 제 4장 은유의 사건 구조적 의미기술

### 4.1 명사적 은유의 기술

Miller(1979)에서는 은유의 형식과 의미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러한 은유 기술의 문제는 바로 SIM이라는 함수에 의하여 명사적 은유, 서술적 은유, 그리고 문장은유를 기술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은유의 형식에 따라 함의관계, 또는 조건관계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제시한 사건구조 의미론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은유의 3가지 유형을 사건구조 의미론에 의하여 그 의미를 기술 할 수 있다. 우선 명사적 은유의 의미를 사건구조로 기수하면 다음과 같다.

(42) a. 남자는 늑대다.

b.  $\exists e[S(\text{남자}, e) \rightarrow \exists e[P(\text{늑대}, e)]^4$

즉 임의의 남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모든 행위인 S라는 사건(e)은 늑대가 행하고 있는 P라는 사건(e)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바꾸어 말하면 남자는 남자로서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인간다운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늑대가 가지고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즉 남자가 늑대의 속성만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속성 외에도 늑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즉 인간의 어떤 속성에 의한 사건이 늑대가 갖는 속성의 사건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이렇듯 (42b)와 Miller(1979)에서 제시한 (36b)를 비교해 보면 (42a)의 의미 기술에 있어서 (42b)가 보다 간결하고 명료함을 보이고 있다.

---

4) 여기에서 S는 남자가 갖는 속성으로서, 이들 속성이 사건으로 기술되는 경우이고, P는 늑대가 갖는 속성으로서, 이들 속성이 사건으로 나타내는 경우이다.

(42b).  $\exists e[S(\text{남자}, e) \rightarrow \exists e[P(\text{늑대}, e)]]$

(36b).  $BE(x, y) \rightarrow (\exists F)(\exists G)[SIM [F(x), G(y)]]$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42b)의 e는 남자가 행동하는 사건이 늑대가 행동하는 사건이 되는 경우이다. 바꾸어 말하면 남자를 늑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심리적 상태나 모습이 아니라 남자가 행동하는 사건에서 늑대가 갖는 사건으로 간주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반해서 (36b)의 SIM은 남자가 갖는 속성 F에는 사건을 포함하여 심리적 상태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가 가질 수 있는 심리적 속성과 늑대가 가질 수 있는 특성과 유사하다로 기술하는 것은 명시적 의미 기술이 되지 못한다.

## 4.2 서술적 은유의 기술

명사적 은유 기술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서술적 은유 기술에 있어서 함수자 SIM의 문제점이 노정된다.

(43) a. 고목에 꽃이 피었다.

b.  $\exists e[(\text{꽃이 피다}(e) \wedge \exists s(\text{고목}(s))) \rightarrow \exists s'(\text{어린나무}, s', e)]$ <sup>5)</sup>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술적 은유의 특성은 주어와 1항 술어와의 관계라는 점이다. 즉 (43a)의 ‘고목’과 ‘꽃’은 ‘피다’의 논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는 ‘꽃이 피다’이고, 논항은 ‘고목’이다. 따라서 (43a)의 구조는 ‘꽃이 피다’라는 1항 술어와 ‘고목’이라는 논항으로 이루어진 구조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43b)에서 보는 것처럼 “고목에 꽃이 피다”의 의미는 꽃이 피는 사건(e)이 고목에서 신목의 상태로 전환되었을 경우 신목은 꽃이 피는 사건이 발생하

---

5) 여기에서 →는 속성의 변화를 나타낸다.

는 경우이다. 바꾸어 말하면 고목에 꽃이 피었다는 “회춘하였다” 또는 “젊어졌다” 또는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되었다”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목이 꽃이 피었다는 사실은 그 고목은 이미 신목으로 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고목의 의미는 신목을 함의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술적 은유에 있어서도 함수자 SIM의 문제는 명시적 의미기술에 문제가 될 수 있다.

(44) a. The rich perform leisure.

b. FERFORM(the rich, leisure) → SIM(ENJOY(the rich, leisure), FERFORM(the poor, duties))

(45) a. 고목에 꽃이 피다.

b. 피다(고목, 꽃) → SIM(??(고목, 꽃), 피다(어린나무, 꽃))

Miller(1979)에서는 (44a)의 은유적 의미를 (44b)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45a)의 의미 역시 (45b)와 같이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SIM의 제1 논항 ??(고목, 꽃)에서 ??의 함수자를 정하는 일이 곤란하다. 왜냐하면 ??에 어떤 함수자를 부여하더라도 고목에 꽃이 피는 것과 어린 나무에 꽃이 피는 것은 SIM의 논항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45a)의 의미를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43b)와 같이 기술한다면 고목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곧 어린 나무에 꽃이 피어있는 상태로 변화이다. 말하자면 (43a)의 의미하는 은유적 의미 곧 “회춘했다”는 의미를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다.

### 4.3 문장 은유의 기술

문장 은유의 특성은 선택제약을 어기지도 않으면서도 언어적 의미 이외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로서 이러한 문장 은유가 성립하는 경우는 주어진 상황이나 전제

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의미자질의 변화도 불필요하며, 언어적 해석만으로는 충분한 의미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46) a. 철수는 기억자도 모른다.

b.  $\exists e[[\text{모른다}(e) \wedge \text{철수}(\text{Sub}, e) \wedge \text{기억자}(\text{Obj}, e)]$

$\models \text{철수}(\text{Sub}, e) \wedge \exists s[(\text{니은자}, s, e) \wedge (\text{디글자}, s, e) \dots ]]$ <sup>6)</sup>

(46)의 의미는 철수는 대단히 우둔한 소년인 경우를 말하고 있다. 즉 (46a)에서 철수가 모르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기억자이지만, 의미상으로는 니은자는 물론이고 디글자 등등 어떤 글자도 모르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46a)는 선택 제약을 어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명시적 사실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적 해석이 가능하지만, (46a)가 갖는 의미는 철수는 무식자임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철수가 기억자도 모른다가 함의하는 내용은 철수는 어떤 글자도 모르는 상황을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문장은유의 형식도 사건구조 의미론에 의하여 형식화함으로써 Miller(1979)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 간결하고 명료하게 은유의 의미를 기술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6) 여기에서  $\models$ 는 함의(entailment)를 표시한다.

## 제 5장 결론

본 연구는 의미론적 관점에서 은유의 문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Aristotle이후 은유를 생략된 직유로 보기도 하였고, 언어의 정상적 사용에서 벗어난 일탈적 현상으로 보는 수사학적 관점에서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은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Richards(1936)와 Black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Richards는 종래 철학자들의 수사학적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그 후 Black은 종래의 은유적 견해를 대치론과 비교론으로 분류하고 이들 보다 더 나은 것으로서 Richards의 견해를 더욱 발전시킨 상호작용론을 주장하였다.

언어학에서는 Chomsky(1965)에 의해, 은유문은 선택 제약을 위반한, 정문에서 일탈한 문이라 하여 처음부터 그의 문법(언어이론)에서 배제되었다. Chomsky의 선택제한이라는 문법장치에 근거하여, 의미자질간의 전이 또는 말소 등의 개념들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은유가 언어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현상임을 은유적 확장으로 나타나는 어휘의 다의성에서 찾고자 이를 위해 은유를 통한 어휘의 의미 확장과 인간의 인지능력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어휘의 은유적 확장에 대한 의미를 기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래의 은유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Miller(1979)에서 제시한 은유의 형식 즉 명사적 은유, 서술적 은유, 그리고 문장은유를 Strawson(1976)의 사건구조 의미론(event structure semantics)/ 아원자 의미론(subatomic semantics)을 모형으로 삼아 은유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기술하였다.

사건 구조의미론에 의한 은유 기술은 은유가 의미하는바 즉 은유 표현이 함의(entailment)하는 의미를 형식적으로 기술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Miller(1979)에서 제시한 SIM이라는 함수자는 은유표현과 의미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기 위한 요소이지만, 모든 은유를 SIM이라는 함수자로 기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은유표현이 나타내는 문어적 의미와 은유적 의미사이의 관계는 함의 관계로 기술하는 것이 의미의 형식화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 아원자 의미론에 입각하여 은유표현이 갖는 의미적, 화용적 현상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일상에서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서 은유의 이해는 국제화 시대에 요구되는 문화 및 정서 그리고 의사소통의 근간을 마련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영옥. (2001). *영어의 개념론적 은유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경원. (1988). *전제와 함의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 (1997). 은유에 관한 연구. *논문집* 33. 교원대학교.
- 김옥동. (2007). *은유와 환유*. 민음사.
- 김종도. (2004). *은유의 세계*. 서울: 한국문화사.
- 김태옥. (2000). *은유와 실재*. 서울: 한국문화사.
- 노양진·나익주 율김. (2006).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 박이정.
- 박영순. (2000). *한국어 은유연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박정희. (2006). *은유의 양상과 기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희. (1990). *합성성 이론(Compositional Approach)에 의한 영어 Donkey문의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명호 율김.(1978). *은유*.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영길. (1985). *은유의 언어학적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현. (2005). 사슬동사의 하위범주와 아원자적 의미기술. *언어과학* 12(1). 한국언어과학회.
- 이영현·유재근 율김.(2003). *의미론의 신경향*. 서울: 한국문화사.
- 이정화외. (2003). *은유: 실용입문서*. 서울: 한국문화사.
- 이한홍. (2000). 데이빗슨의 사건 존재론. *철학논총* 20. 새한철학회(영남철학회).
- 정성열. (1999). *영어와 한국어의 은유표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용. (1996). *隱喩와 換喩*. 부산: 신지서원.
- 정희자. (1998). 은유(Metaphor)의 해석에 대하여. *외대논총* 19(1). 부산외

- 국어대학교
- \_\_\_\_\_ (1999). 삶으로서의 은유. *외대논총* 19(3). 부산외국어대학교.
- 한국기호학회. (1999). *은유와 환유*. 서울: 문학과지성사.
- 한인혜. (1990). *隱喩연구: 아리스토텔레스 '詩學'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승욱. (1985). 은유에 관한 소고. *언어연구* 2(1). 한국현대언어학회.
- \_\_\_\_\_ (1988a). 영어 은유의 의미론적 분석. *논문집* 5. 충남대학교 대학원.
- \_\_\_\_\_ (1988b). 영어 은유의 의미론적 고찰. *언어연구* 5. 한국현대언어학회.
- \_\_\_\_\_ (1989). *영어 은유의 개념론적 해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2). Matthews의 언어적 은유분석에 관하여. *현대영어영문학(구 영어영문학연구)* 46(3).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 \_\_\_\_\_ (2006). Searle(1979)의 은유론에 관한 개념융합적 고찰. *언어연구* 22(2). 한국현대언어학회.
- 홍이화. (1987). *은유(metaphore)의 연구: 언어학적 해석과 이해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istotle. (1968). *Poetics*. L. Golden & O. B. Hardison. (Trans.). Englewood: Prentice-Hall.
- Black, Max. (1962). *Models in Metaphor. Studies in Language and Philosoph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 (1979(1977)). More about Metaphor, in Ortony. A. (Ed.), *Metaphor and Though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1(1955)). *Metaphor*. Johnson (Ed.).

- Castañeda, Hector-Neri. (1967). Comment on D. Davidson's The Logic Forms of Action Sentences, in Rescher, N. (ed.). *The Logic of Decision and Action*.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Chomsky, Noam.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I.T. Press.
- Cohen, Ted. (1975). Figurative Speech and Figurative Acts. *Journal of Philosophy* 72.
- \_\_\_\_\_. (1976). Notes on Metaphor.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34.
- Davidson, D. (1967). The Logical Form of Action Sentences, in Rescher, N. (Ed.), *The Logical Decision and Action*.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_\_\_\_\_. (1978). What metaphors mean. *Critical Inquiry* 5.
- \_\_\_\_\_. (1984).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 Oxford: Clarendon Press.
- \_\_\_\_\_. (1986). *Truth and Interpretation*. Oxford: Blackwell.
- Davidson, D. and Hintikka, J. (1975). *Words and Objections: Essays on the Work of W. V. Quine*. (Revised ed.). Dordrecht:: Reidel.
- Dowty, David R.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the semantics of verbs and times in generative semantics and in Montague's PTQ*. Dordrecht: D. Reidel. Pub. Co.
- Elgin, Suzette Haden. (1979). *What is Linguistic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Frege, Gottlob. (1975). *On Sense and Reference*, in Davidson & Harman. (Ed.).

- Hawkes, Terence. (1972). *Metaphor*. London: Methuen.
- Jenssen, T. M. V. (1978). Compositionality and the Form of the Rules in Montague Grammar, in J. Groenendijk and M. Stokhof (Ed.). *Amsterdam Papers in Formal Grammar II: Proceedings of the Second of Amsterdam of Amsterdam Colloquium on Montague Grammar and Related Topics*.
- Johnson, Mark. (1981).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Metaphor*.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_\_\_\_\_. (1983). Metaphorical Reasoning.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21-3.
- Kearns, Kate. (2000). *Semantics*. London: Macmillan Press.
- Kovecses, Zoltan. (2002).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Lakoff, George. (1986). *Metaphorical Issues: A Figure of Thought, Metaphor and Symbolic Activity* 1-3
- \_\_\_\_\_.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9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evised version).
- Lakoff, George, and Mark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81). Conceptual Metaphor in Everyday Language, in M. Johnson (Ed.), *Philosophical Perspective on Metaphor*.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 Lakoff, George, and Mark Turner. (1989). *More than Cool Reason: A*

-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vin, Samuel R. (1977). *The Semantics of Metaphor*.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atthews, R. J. (1971). Concerning a Linguistic Theory of Metaphor. *Foundation of Language* 3
- Miller, George A. (1979). *Images, Models, Similes and Metaphor*, in A. Ortony. (Ed.).
- Montague, R. (1974). *Formal Philosophy: Selected Papers of Richard Montague*, edi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Richmond Thomas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Ortony, Andrew. (1976). *Metaphor and Though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tee, B. H. (1979). Montague Grammar and the Well-formedness Constant, in F. Henry and H. Schnelle. (Ed.), *Syntax and Semantics* 10
- Richards, I. A. (1936). *The Philosophy of Rhetoric*.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81). *Richards on Rhetoric: Selected Essays*. Oxford University Press.
- Searle, John R. (1969a). *Speech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69b). *Express and Mea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rawson, P. F. (1974). *On Referring*, in Zabeeh et al. (Ed.).
- Turner, Mark. (1987). *Death is the Mother of Beau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heelwright, Philip Ellis. (1973). *Metaphor and Reality*. Indian  
University Press.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영어교육	학 번	20078053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허 정 원	한문: 許 正 怨	영문: Heo Jeong-won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2동 743-9 용봉맨션 1-106				
연락처	E-MAIL: garden112@naver.com				
논문제목	한글 : 은유의 의미기술에 관한 연구 영문 : Formal Description of Metaphorical Meaning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9 년 11 월

저작자: 허정원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